

# 韓國 開化期の 書舖에 관한 研究\*

金 鳳 姬\*\*

## 目 次

- |                 |            |
|-----------------|------------|
| 1. 序 言          | 3.2 書舖의 役割 |
| 2. 書舖成立의 社會的 背景 | 3.3 書舖의 現況 |
| 3. 書舖의 設立과 發展   | 4. 結 言     |
| 3.1 設立          |            |

## 1. 序 言

한국의 개화기는 전통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정신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서구문물이 수용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어낸 시기이다. 문화적으로는 문호개방과 함께 개화사상이 만연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서관인 대한도서관 역시 이 시기에 설립된 것이다. 서적계에도 이전의 유교서적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의 계몽정신 함양을 위한 신서적의 간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개화문물은 일본의 침략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자연히 이때 형성된 문화는 애국계몽적 성향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서적의 간행 역시 궁극적으로 독립국가를 지향하며 전체 국민의 민지개발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에 전례없던 많은 서적의 간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전통적 서적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서포의 출현이다. 서포의 설립은 조선시대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개화기에 이르러 신서적 유통의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되었고 그 분포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연구기금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 1994. 9. 28.

역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간다.

개화기 서포에 대한 고찰은 이처럼 전통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근대적 도서관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는 1910년 이전, 일반 국민의 서적에 대한 욕구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서적의 유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사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개화기 서포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적은 있으나 당시 자료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단편적으로 기술해 낼 수 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나타난 기사와 서포, 서적광고를 주대상으로 서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들 신문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1898년부터 1910년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당시 서포는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국민계몽의 차원에서 민간에 의해 시작되었고 민족계 서포들 역시 애국계몽시기를 전후하여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즉 1910년부터는 일제의 문화정책이 실시되면서 모든 출판, 언론활동이 탄압을 받게 되어 사실상 그 세력은 위축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따라서 애국계몽시기의 서포활동과 출판활동은 개화기 애국계몽기를 포괄하고 있는 이 두 신문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당시 서포들이 설립될 수 있었던 제반 사회적 배경과 설립에 대해 살펴보고, 또 서적의 판매 외에 개화기 서포들이 가졌던 역할과 마지막으로 서포들의 이름과 주인, 주소 등을 추적해 그 존립과 당시 서포들이 위치했던 지리적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書舖成立의 社會的 背景

개화기 서포들이 출현하기 이전 조선시대에는 書肆가 있었다. 설립시기를 놓고 크게 中宗年間, 明宗年間, 純祖年間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일치된 합의는 없으나 문헌상 그 설립이 확인되는 純祖年間에 조차 書肆는 실제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같고 그 분포 역시 일정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中國에서는 宋代에 이미 많은 書肆가 있어 서적을 출판해내고 판매했던 것과 비교해보면<sup>1)</sup> 우리나라에서의 서적판매업은 매우 금기시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壬亂 이후 출현해 大邱 지역의 達城坊刻本, 서울, 安城을 중심으로 한 京板坊刻本,

泰仁 등지의 完板坊刻本으로 자못 성하였던 방각본은 일반 서민들의 지적호기심과 서적에 대한 열망을 일부 해소시켜 주기는 하였으나 서당의 아이들이나 규방의 아낙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즉 경서와 같은 교육용 서적이거나 언문소설 등으로 그 내용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中宗年間에 논의가 시작되어 수백년 동안 실학자들의 끊임없는 제의가 있어 왔던 것을 보면 書肆의 설립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방각본이 민간을 통해 간행되고 민간에 의해 판매되는 출판물이라 전제할 때 純祖에 이르도록 서사가 전무했으리라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는 다만 서적을 전매하는 書肆의 출현이 늦은 것이며 민간에서의 서적판매는 분명 있어왔다. 즉 조선시대 방각본 등의 서적은 책거간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書肆 - 紙物이나 藥品 등 각종 물품들과 함께 서적을 판매하던 곳 - 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책거간과 제도화되지 않은 서포는 개화기에 정착되는 서포의 전단계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조체제는 서포가 정착된 개화기 때까지도 지속된 현상이다.

개화기에 이르러 서포들이 정착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많아진 출판물과 다양해진 서적욕구이다. 여기서 활발해진 상공업의 영향을 받아 서적판매에서 오는 경제적 이윤도 서포정착의 원인으로 작용한 잇점이다. 실제 방각본은 대체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면서 더욱 활발한 간행이 이루어졌고<sup>2)</sup> 이는 서포의 정착과 무관치 않았다.

또 개화기에 이르면 국민교육과 계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밀려오는 서구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서 이전의 전통적인 도서관이나 서포들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즉 서구문물의 유입과 함께 많은 외국서적들이 수입되면서 선각자들에 의해 번역활동이 활발해 지고 아울러 국민개화 차원에서 다방면의 서적이 요구되었다. 이는 危難之頃에 이른 국가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책의 하나였다. 이에 많은 서적이 출판되면서 이를 소화할 서포의 운영도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韓每日申報 제 3권 51호는

書籍이 爲開發民智之指南

方今世界列國의 情形을 觀察ᄃᆞᆫ디 彼開明富強ᄃᆞᆫ 國民은 皆愛國熱心이 有ᄃᆞᆫ야 國家

1) 金侖壽,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書誌學研究, 第 5,6 合輯, p.356

2) 柳鐸一, '大邱地方刊行達板坊刻本에 對하여', 書誌學研究, 第 3輯, p.69

事를 自己事로 擔當하야 活撥進取하기로 爲主함이 若其自國의 權力이 他國의 對하야 一步라도 退讓하게 되면 全國人民이 憤發激動하야 寧其身命을 拋擲하지언정 國家權力은 他人에게 不讓하기로 人民의 義務를 습느니 此는 無他라 知識이 開明하야 國家榮辱이 自己榮辱됨을 認知하는 緣故라...(중략)...此는 無他라 知識이 閉鎖하야 國家存亡이 自己에 相關이 無호줄로 認知함이라

然則 大韓人民으로 함이금 愛國熱心을 養成코져하면 民智를 開片扁 함에 在하고 民智를 開片扁 코져호진디 書籍이 緊要호지라 日今 大韓國中에 諸般社會가 稍成立하얏스니 其發起倡立호 人員은 皆有志者라. 各其 社會中에서 一般會員을 愛國熱心으로 一致 養成코져 하면 先히 東西各國 近代史記와 有名호 人物의 事蹟과 各種 學業의 文字를 或 國韓文을 交用하야 譯述호며 或純國文으로 以호며 或小說로 以호며 或歌謠로 以하야 曉解호기를 便易케호며 感觸호기를 深切케하야 一般會員이던지 其他人民이던지 廣爲授獨하야 作業之暇에 或朗讀호며 或討論하야 其滋味를 得호게하면 不過 十種內外間에 感化力이 滋長하야 知識의 開發도 되고 愛國熱心이 一致奮發하야 一等開明호 人類가 되리니 諸般社會는 此事에 注意勉力함을 十分切望호노라”

하여 당시 몇몇 有志家들을 중심으로 서적사업이 전개되고 있었고 국민계몽과 애국심의 발로에서 많은 저술과 번역활동 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한말 선각자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신식학교들이 세워지고 기존 교육체제가 정비되면서 필연적으로 교과과정의 개편이 따르게 되었다. 학교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교과서계는 새로운 서적의 편찬과 간행이 요구되었다. 大韓每日申報 제 3권 79호는

@ 書籍이 急於學校

國內에 學校를 廣設호며 외국에 遊學을 派遣하야써 人才를 育成함이 文明의 基礎가 되고 時務의 要点이 됨은 不矣再論이어나와...(중략)...此等學生으로 하야금 時務에 適用之人才를 養成코져하면 泰西各國과 東洋日本의 新學問 書籍을 廣爲譯出刊布하야 素有夙工於漢學者로 하야금 無不閱讀케하야 廣基智識호고 增基才力호면 不出數年하야 時務에 適用호 자를 可以多得이니 政府의 當局者와 社會의 有力者는 新書籍譯刊의 事業을 極圖 廣張호지어다”

3)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12일, 논설

4)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17일, 잡보

당시는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개방과 함께 개화문물이 소개되고 일부 선각자들과 유지가들에 의해 국민교육의 중요성이 절박하게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출판물들이 간행되게 되었고 이들 서적 역시 보다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유통경로를 마련해 일반국민에게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개화기 서포들은 애국적 발로에서든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자연발생적으로 그 수를 더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 3. 書舖의 設立과 發展

#### 3.1 設立

개화기 최초의 서포는 高濟弘書舖로 알려져 있다. 고제홍서포는 1880년대 말 高濟弘이 大廣橋에 있던 書肆를 인수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를 그의 아들 高裕相이 가업으로 이어 개화기 대표적인 서포로 발전시켰다<sup>5)</sup>

高濟弘書舖란 이름은 1906년까지 사용하였고 그후엔 高裕相書舖 혹은 匯東書舖로 불리웠는데 隆熙年間에는 주로 匯東書舖로 불리웠다.

高濟弘書舖가 설립되던 당시는 서적이 서포보다는 冊居間이나 신문사, 잡지사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獨立新聞社나 大韓每日申報社에서는 본사에서 발간하는 서적 외에도 수입서적이거나 국민개화에 필요한 각종 출판물들을 판매하였다. 학교에서도 간행된 출판물을 판매하였는데 <<협성회회보>>는 培材學堂이, <<大韓新報>>는 光武協會와 京城學堂에서 판매하였고 梨花學堂에서는 <<전대공용문답>>이라는 서적을 발간 판매하였다. 정부에서도 學部, 刑部, 農商工部 등에서 관련서적을 발간해 판매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여러 개의 서포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서적도 전문유통체계를 마련해 간 듯 하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출현한 서포들은 朱翰榮冊肆 (=舖中央書館, 京城 東闕 能朝橋 越便), 金相萬冊肆 (=廣學書舖, 皇城 中部 布屏下 37統 6戶), 耶蘇教書會 (鄭益魯, 金聖鐸, 平讓 貫洞 上隅), 大同書市 (金基鉉, 漢城 鐘路), 啓明書館 (平讓), 東華書館 (金

5) 趙璣濟, '開化期の 書籍商들', 중앙 30 (1970, 9), pp.371-373

興淵, 漢城 北署 安國坊 大安洞) 등이다.

즉 朱翰榮冊肆, 金相萬冊肆, 高濟弘冊肆, 大同書市, 東華書館은 서울에, 耶蘇敎書會, 啓明書館은 平讓에 위치하며 1907년경 많은 서포들이 출현한 후 隆熙年間까지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포들이다. 이 중 朱翰榮은 1905년까지도 東關 能朝橋 건너편에서 博文書林 (혹은 朱翰榮冊肆라 불리기도 하였음)을 경영했던 것으로 보이나 1907년부터는 中央書館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엔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朱翰榮冊肆, 金相萬冊肆, 大同書市들이 이전에 생긴 高濟弘書舖보다도 오히려 더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朱翰榮書舖의 경우 光武 5년부터 隆熙年間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신문에 서적광고를 내면서 당시 간출된 많은 서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高濟弘書舖는 1906年(光武 11年) 高裕相書舖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이전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초기 서포가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인 1900년 전후에는 서적만을 전담해 파는 서포보다는 서적과 기타 물품을 겸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光武 2年(1898)에 개업한 同文肆(南署 大平坊 洞 三十八統 八戶)는 내외국 서적과 서양약품을 판매하였고<sup>6)</sup> 張賢周紙塵(松橋), 鄭斗煥紙塵(壽洞越便)은 紙物과, 崔錫禧床塵(安洞 四巨里 第二)은 床을 서적과 함께 판매하던 곳이다.<sup>7)</sup> 또 北署 夜珠峴 北便의 魏敬植紙塵, 安洞 別宮前의 張繼賢紙塵, 梨峴 統屏下隅의 片鴻基紙塵, 南門內 倉洞 上隅의 宋元奎紙塵, 中署 壽進洞 越便의 鄭斗煥書畫舖는 <<美國獨立運動史>>, <<波蘭末年戰史>>, <<法國革新戰史>><sup>8)</sup>, 그리고 <<精選算學>>과 <<同解式>> 등을 판매하였다.<sup>9)</sup> 여기에서 鄭斗煥紙塵은 光武 4年(1900)에 가면 書畫로 업종을 바꾼 것이 보인다. 그러나 光武 5년에 이르러 이들 紙塵의 서적판매광고는 줄어들고 朱翰榮冊肆, 大同書市와 같은 전문서포들의 광고가 기재되기 시작해 서포의 완전한 정착이 이 시기를 전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紙塵의 서적판매는 점차 줄어들었으나 몇해를 지나면 문방구류와 같은 교육용품을 함께 파는 곳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간혹 洋藥이나 衣服, 測量機械, 特產物 등을 함께 판매하기도 하였다.

6) 황성신문, 제 1권 50호, 광고

7) 황성신문, 제 2권 291호, 광고

8) 황성신문, 제 3권 195호, 광고

9) 황성신문, 제 3권 277호, 광고

이들 서포의 주인들은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고 각기 신분들도 달랐으나 당시로서는 개화문물을 전달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던 선각자들이었다.

皇城新聞 第 2327號와 大韓每日申報 第 4卷 365號는 '東華書館趣旨書'란 기사명으로 동일한 내용의 취지문을 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書籍者는 文明之質素오 學問之機關이라非 書籍이면無以博其智識호며無以資具參攷호며無以發展其學術而增張其理想아리니 書籍之所以有力於文化者-如此故로欲發達國民之教育者는必從書籍而爲主호느니自近世期以來로泰西高明之士-竭其腦力호며 其精神호야以研究新學問호고發明新智識者-其晝日富호고其理日長이라由時로國以之富强호고人以之文明호야 蒸

蒸有勃興之勢者는皆學問之功호야오近來東洋之日本도亦探究乎新學之書호며覃精于實用之學問호야以致東亞之強國者-皆收效於此也라...(중략)...極宜斷棄舊書호고務講新學然後庶幾挽回國步호며振作文化나然而患書籍之未備호야雖有志於廣智識博理想之方이라도 無處求見호며無從得讀호야自棄其才호고自錮其識호니嗚呼라文明之不進이豈非因此而尤甚歟아否 齊之所慨然而遺憾者-久矣일시此-東華書館所以創設也니-名之以東華者는其義-有二라 統以言之호면謂吾東洋之文華書館也오分以言之호면謂我東之國文과及支나之華文也니今淸國 上海新刊書籍은皆英文及日文之新書籍을以漢文이譯刊者라若讀此則難不通於英日文者 자라도能通於英日之學術矣오且近日我國에各種新書之譯刊者와與各種教科書之編述者는以國漢文參互而譯出호야雖僅解文字者라도皆能通曉케호니本館은不特廣刊書籍而已라亦與上海者書局과及本國各社會로聯絡契約호야四求購入에無書不備호며無籍不具호야以應國內諸君子止購覽호며以酬各學校之教科호고至其書冊代金하야는確有一定不易之價호야公布全國호니...(하략)<sup>10)</sup>

라 하여 서적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 이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문명화시킨다고 하였다. 日本 역시 신학문, 실용학문과 관련된 서적을 연구해 동양의 강국이 된만큼 우리도 신학문 수용에 힘써야 하나, 지식과 견문을

10) 황성신문, 광무 10년 11월 7일,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7일, 잡보

업을 서적이 미비하여 재주를 버리게 되니 이를 위해 東華書館을 창설한 것이라 하였다. 東華라 명칭한 이유는 東洋의 文化라는 것인데, 만일 이곳에서 구비하지 못한 서적이 있을 때 上海와 연락을 취해 그곳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외국서적을 구입해 구비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서적이 없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는 국내 서포들이 외국의 서포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적구비에 있어 완벽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 大韓每日申報 제 4권 308호는 東華書館의 주인인 金興淵이 上海 廣智書局으로부터 수백종의 서적을 買入하여 여러 서포들과 함께 판매함으로써 지식을 개발시키고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 廣智書籍

上海 廣智書局에서 印行하는 各種 教科書와 東西諸國歷史와 政治法律에 關한 幾百種을 韓國 有志士 金興淵氏가 該局에 前往하여 多種買來하였는디 平讓 大同書館과 京城市 慶屏門下 金相萬氏書肆와 義州 大韓每日新報支店에 諸置發賣하니 凡此 國中에 有志新學之士는 於此求買하면 智識開發에 大有便利라 하노라<sup>11)</sup>

또 東華書館은 지역, 이용자에 따라 가격차이를 두지않는 정가제도를 채택해 합리적인 판매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玄公廉, 朱翰榮, 高裕相, 金基鉉, 鄭喜鎮 등 서적 관련업자들은 도서출판의 장려와 발매방법의 규정 등을 구상하기 위해 皇城書籍業組合을 결성하는가 하면 이와함께 圖書館, 縱覽所 등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다.<sup>12)</sup> 또 大韓每日申報 제 8권 1404호에는 서포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農商工部에 승인신청을 했다<sup>13)</sup>는 기사도 있다.

#### @ 圖書組合

漢城內外 各印章 圖書舖에서 組合所를 設立하기로 吳圭熙, 玄尙默 諸氏가 農商工部에 承認次로 請願하였는더라<sup>14)</sup>

11) 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31일, 잡보

12) 황성신문, 광무 11년 6월 21일, 잡보

13)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5일, 잡보

14)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5일, 잡보



서포의 이러한 공조체제는 隆熙 4년에 第二義進書館이 화재로 폐점되자 각 서포들이 많은 서적을 내놓아 이것의 재건을 도운 사례에서도 발휘되었다.<sup>15)</sup>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金相萬書舖, 高裕相書舖, 朱翰榮書舖는 補償 義金을 모으던 收錢所의 역할을 함으로써 민족적 애국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sup>16)</sup>

즉 당시 서포주들은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서포를 운영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부강한 국가와 국민계몽에 앞장서던 민족의식을 지닌 개화선각자들이었다.

### 3.2 書舖의 役割

서포들이 판매하던 서적들은 크게 교과서와 각종 역사서, 내외국 신구 실용서적, 야소고 관련서적, 소설, 각종 잡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류와 신구 실용서적들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수나 양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교과서의 침투가 심각히 우려되게 되었고 이에 선각자들은 국민계몽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많은 저술과 번역, 편술활동을 벌이게 되며 서포들 역시 이들 서적의 판매를 적극 담당하였다. 大韓每日申報 第3卷 45號 은

#### ㉠ 論蒙學教科

(생략)... 至若日語와 日文으로 蒙學教科를 編成호는 韓國에 適宜호 教科方針이라 謂치못호리로다. 現今六洲相通호고 萬邦交涉之日에 世界各國의 言語文字를 皆可學之者오.

況韓日兩國은 上下人民이 朝夕與處호고 步武相接之地라 互相間言語文字를 豈可不學이리오. 然호는 學語小兒로 호야금 先히 他國言文을 學習케호면 曉解가 甚難호야 文化의 發達이 尤極遲遲호는더러 全國蒙幼의 先入之學이 惟是他國言文이면 一般人民의 腦隨호는 專히 他國精神호는이오 自國精神은 全然히 消滅호는 境遇에 至호리니 此其關係가 果何如哉가...(중략)...尋常小學科는 本固性質의 適合호는것을 斟酌호며 各國規模의 良好호는 것을 參酌호야 國漢文을 交用호고 繪畫를 合호야 簡便易知호는 冊子로써 全國蒙幼의게 一致教科를 裁定호는이 可호다호노라.<sup>17)</sup>

15) 황성신문, 음희 4년 4월 20일, 잡보

16)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7일, 잡보

17)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5일, 논설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뜻있는 선각자들의 저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미 1904년부터는 일반국민의 교육과 지식의 발달을 목적으로 國民教育會가 창설되어 서적의 편집과 번역, 발간사업을 벌이는 한편<sup>18)</sup> 교과서 편찬과 국민계몽을 위해 興士團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大韓每日申報 제 6권 830호<sup>19)</sup>, 제 831호<sup>20)</sup>, 제 981호<sup>21)</sup>, 제 982호<sup>22)</sup>에서는 ‘舊書蒐集과 刊行’이라는 논설로 ‘書籍出版家諸氏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붙여 실음으로써 점차 가해오는 일본의 문화정책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學部는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 學部大臣의 認可를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勅令으로 정하는 한편<sup>23)</sup> 각 학교가 사용할 교과서는 학년초부터 2개월 전에 학교장이 학부대신의 인허를 받도록 할 것을 部令으로 정하여<sup>24)</sup> 교과서 출판과 사용에 강한 제재를 두었다. 드디어 1909년 2월엔 교과서 검정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게 되고<sup>25)</sup> 만일 각 서포에서 인쇄발매하는 제반 교과서 중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압수하여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26)</sup> 실제 서포들에 대한 警視廳의 서적의 압수가 있기도 하였다.

#### @ 書籍押收

昨日上午에 警視廳에서 漢城五部 警內 各書店에 所有 越南亡國史 二拾壹紀朝鮮論과 東國史略 幼年必讀竝釋義와 우슬소리 등 各種冊子를 壹切押收하였는디 其時觀光者들이 舉皆痛歎不已 ㅎ앗다더라.<sup>27)</sup>

한편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에 대해서도 서포를 별도로 지정하여 발매하도록 제한하였는데 官報 4179호<sup>28)</sup>는 이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8)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9일, 잡보
  - 19)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4일, 논설
  - 20)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6일, 논설
  - 21)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8일, 논설
  - 2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8일, 논설
  - 23)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13일, 칙령上報, 1906년 9월 15일, 칙령
  - 24)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22일, 논설
  - 25)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3일, 관보
  - 26)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20일, 잡보
  - 27)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7일, 잡보
  - 28) 관보 4179호, 1908년 9월 15일, 학부령 제 18조

㉔ 학부편찬 교과용도서 발매규정

- 제 1 조 - 학부편찬 교과용도서의 발매를 위해 전국 필요한 지역에 약간의 발매인을 설치한다.
- 제 2 조 - 발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 조 - 발매인의 교과용도서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도 서식의 청구서에 공급대금을 첨부하여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급대금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 조 - 발매인에 대해 공급하는 교과용도서는 매회 2종 미만의 공급은 금한다.
- 제 5 조 - 교과용도서의 目錄과 卷名 및 발매대가의 최고액은 관보에 공고한다.
- 제 6 조 - 교과용도서의 공급과 그 발매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부대신은 제 2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 - 학부대신은 발매인의 허가와 허가취소, 사무정지에 대해 즉시 그 년 월일, 주소, 성명을 공고해야한다.

부칙

- 제 8조 - 본규정은 율희 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9조 - 광무 11년 학부령 제7호 학부편찬 보통학교 교과용도서 발매규정은 폐지한다.

그후 이를 위한 발매인이 정해졌다.

㉕ 發賣權認許

학부編纂教科用圖書發賣權을 高裕相, 鄒雲復, 朱翰榮, 其他某某册肆에게 認許하였다더라<sup>29)</sup>

는 기사와 대한매일신보 제 6권 947호는

㉖ 學部圖書의 許賣

學部編纂教科用 圖書發賣規程은 向日官報에 頒布하였거니와 寺洞 唯壹書館及 他京鄕 拾餘書舖에만 限하여 學部圖書書籍 발매의 許可를 得었다더라<sup>30)</sup>

29)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9일, 잡보

30)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6일, 잡보

하였다. 즉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는 高裕相書舖나 朱翰榮書舖, 唯一書館 같은 認  
 可받은 發賣所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융희 2년에 가면

@ 販賣人氏名

學部에서 國定教科圖書 販賣規定을 因하야 子今스기 指定한 販賣人의 氏名이 如左  
 하니 大韓書林, 淮東書館, 日韓書房, 三和港 億兩機虛 伯麟博物書館, 釜山 大廳町 吉田市  
 次郎, 大同書市, 廣學書舖, 中央書館, 平讓 隆德面 車宗鎬, 平讓 隆德面 太極書館이다라<sup>31)</sup>

하여 그 발매소를 조금 늘렸다. 그러나 서포의 인가제도로 인해 인가를 받지 못한  
 서포나 중소규모의 서포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아 폐점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다.<sup>32)</sup>

즉 1909년의 교과서 검정규정을 계기로 도서의 출판 뿐만 아니라 서포의 활동도 심  
 하게 위축되게 된다. 학부의 이러한 통제는 사상과 문화의 통제를 위한 일본 문화정  
 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는 '국가를 멸망케 하는 학부'라는 격한  
 비난이 학부의 교과서 검정제도에 쏟아졌고<sup>33)</sup> 이에 민족계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教科  
 書 刊行團의 설립이 논의되게 되었다.<sup>34)</sup>

서적의 판매 뿐만 아니라 일부 서포에서는 서적의 발행을 겸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들 발간된 서적의 판매를 위해 발매소나 지점책사를 설치하였다. 이때 서적을 간행한  
 서포는 發行所 혹은 發行原이라 불리웠고 서적을 판매하던 서포는 (大/分)發賣所, 發  
 賣元, 賣却所, 元賣所, 分賣所, 發賣處 등이라 하였다.

匯東書館, 中央書館, 廣學書舖, 耶蘇教書院, 安峴書館, 唯一書館, 大同書館, 廣東書局,  
 博文書館, 廣德書館 외 많은 서포들이 서적의 간행을 맡아 보았고 때로는 서적업 단  
 체인 皇城書籍組合이 발행원이 되기도 하였다.

서포의 발행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08년경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후 융희년간에 이르면서까지도 계속되었다. 초  
 기에는 서울이 발행의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평양이나 -大同書館, 耶蘇教書院 등- 대  
 구 -石室書館-가 발매원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것은 지방 인쇄술의 발달을 의미

31) 황성신문, 융희 2년 10월 10일, 잡보

32)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26일, 논설

33)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6일, 논설

34)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26일, 논설

하는 것이며 서포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發賣所는 敬尙의 각 서포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耶蘇敎書院이나 東華書館, 廣學書館과 같이 규모가 큰 몇몇 서포들은 本포의 支店을 두어 운영하기도 하였다. 耶蘇敎書院는 支店冊肆 3곳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고 있다.

本書院에서 內外國新舊書籍 各種書籍과 聖經 各種을 大發賣한지 三四年인 바 本敎會 敎人과 각 學校生徒의 購覽하기 便利함을 爲하야 左開三處에 支冊肆를 新設하오니 書籍을 願賣하시느 兪彦은 附近 支冊肆에 請求하심을 務望

左開

西門外中學校西便 韓承煥

南門外通路東便 安桂元

鐘路館門下七次房 韓鼎敎

平讓 貫洞 上隅 耶蘇敎書院

鄭益魯 金聖鐸 告白<sup>35)</sup>

東華書館 역시 설립과 함께 京城 뿐만 아니라 咸鏡南道와 北道에 지점을 설치해 운영했다. 즉 咸鏡南道 端川邑 (支店主 金應聲)과 咸鏡北道 城津港 (支店主 申景均) 두 곳에 지점을 설치하였다.<sup>36)</sup>

서적의 판매 및 간행사업 외에도 일부 서포들은 서적의 유료대여도 실행하였다. 英林書館은 일정한 임차료를 받고 일반인들에게 서적을 빌려주었다.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서관이 각종 서적을 발매하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들이 많은 서적을 일일이 구입하여 열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동서양 신구 서적 중 소설 각종과 참고에 필요한 서적들을 임차한다.

#### 서적임차약규

- 서적을 빌려갈 때 본관에 서적의 서명과 권수를 임차해가는 사람의 성명 주소와

35) 황성신문, 을화 2년 3월 10일, 광고

36) 황성신문, 광무 10년 12월 4일, 광고

함께 적는다.

- 보증품은 해당 서적의 원가액을 표준으로 하며 현재는 유가증권이나 동산등을 교부한다.
- 임차료는 서적 원가액이 10전 이상 30전 이하일 땐 2전 5리, 30전 이상 50전 이하일 땐 5전, 50전 이상 1환 이하일 땐 7전으로 정하여 선금으로 영수한다.
- 기한은 매 1권에 24시간으로 정하고 빌려보는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땐 편히 연기한다.
- 기한이 초과했는데 반납치 않거나, 혹은 원서를 파상, 유실했을 경우 보증품에서 서적가를 제하고 준다.

中部 寺洞 二統七戶 英林書館<sup>37)</sup>

이상의 규정은 오늘날 도서관들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편 이상의 임차규정에 나타난 것처럼 서포 역시 일반인들의 서적구람이 경제적으로 쉽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耶蘇敎書會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본회 건물에 도서실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하였다. 즉 1898년 처음 기초가 마련되었던 야소교사회는 그후 서울, 부산, 및 평양에 각기 서포를 설치하고 사회간행물을 발간해 판매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평양 야소교사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평양에서는 모페트 목사가 처음 서포를 설치하여 성서와 사회간행물을 판매해 왔는데 1905년에 이르러서는 2층 건물을 지어 平讓宗敎書店이라는 명칭을 붙여 서점이 독립건물을 갖게 되었다. 이 서점의 관리자는 鄭益魯였는데 그는 2층의 넓은 방을 도서실로 개방하여 누구든지, 또 어느 때든지 들어와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38)</sup> 그리하여 일반인들은 기독교 신자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그 방에서 독서할 수 있었다. 또 곧바로 이를 광고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本書院樓에 諸般新舊書籍과 各種新聞을 具備하고 事務員이 來賓을 運接하고 書籍을 講求하는디로 酬應호오니 學問에 有志僉君子는 來臨호시와 臨意閱覽호시오  
又弊院의서 發賣호는 萬種書籍을 一一放擧키不能호와 大綱만 記載호오니 照亮??臨購

37) 황성신문, 을미 2년 10월 27일, 광고

38) 李章植, <<大韓基督敎書會 百年史>>, 서울 : 대한기독교사회, 1984, p.175

覽 敬要

聖經 國文漢文英文日	哲學 各種
天文 各種	地理 各種
地圖 國文漢文各種	圖說
歷史 國文漢文各種	格致 國文漢文各種
算學 國文漢文各種	教科書 并課本等類 國文漢文各種
植物 動物 國文漢文各種	儒教 大小板各種
醫學 內外國翻譯各種	

平讓貫洞上隅四番家 耶蘇教書院 告白<sup>39)</sup>

또 대한매일신보 제 6권 790호에

㉔ 悖說是誤傳

再昨日曜日 本報雜報欄에 牧師 悖說이란 題下에 平讓 宣教師 馬布氏가 講道할時에 新文興 新書籍은 世上학文이라 非吾信徒의 所講남子니 一切拒絕 不 하얏다고 揭載하얏 더니 更聞은즉 該氏가 我國에 來한지 十餘星霜에 傳教에 熱心을 奮터러 耶蘇教書院을 設置하고 各種 新書籍을 輸入하며 院內에 新聞從남所를 更設하여 韓國同胞의 知識開道 興에 倦倦하는터인즉 此等言論을 不 理가 無히 此는 信仰力이 無히者의 誤傳이기 一時誤聞됨을 慨惜히 녀어 茲에 正誤하노라

라는 기사에서도 야소교서회의 도서관 운영이 확인된다.

### 3.3 書舖의 現況

초기 서포들은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두 곳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전통적으로 외국문물의 유입이 많아 개화의 본거지로 자리함으로써 일찍부터 서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모든 인쇄기관이 자리잡고 있었

39) 황성신문, 광무 10년 9월 25일, 광고

고 육의전 등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해 일찌기 많은 서포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을 제외한 그외 지방에서는 광무 10년 이전까지 이렇다할 서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서포성립 이전형태인 紙廬, 혹은 각 학교 등에서 서적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무 10년 이후부터는 지방에서도 서적판매를 전담하는 서포가 점차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구지역의 金琪鴻書舖나 인천의 開新冊肆, 평양에 세워진 啓明書館 등은 초기 정착기에 세워졌던 서포로 1906년 이전에 지방에 세워진 서포들이다. 1907년에 들어서면 많은 서포들이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그 수를 점차 늘려가게 된다. 또 점차 읍단위의 서포들도 출현하게 되어 융희년간에 들면 서포는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 같다.

다음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에서 당시 있었던 서포들의 위치와 주인 등에 관해 살펴 본 것인데 전국에 100개 이상의 서포가 확인된다.

廣告年	書名	主人	住所	備考
1880년 말경	高濟弘書舖	高濟弘	南署 大廣橋 東邊 二十七統四戶	1906년 이후부터 匯東書舖, 高裕相 書舖로 불림
1898년	同文肆		南署 大平坊 棗洞 三十八統八戶	(서양약품)
1900년	金相萬書舖	金相萬	中署 布慶屏門下 南邊 三十七統六戶	廣學書館 (융희3년 鐘路電氣會社越邊에 支冊肆 있었음)
1900년	朱翰榮書舖	朱翰榮	中署 洞口 能朝橋 越邊	中央書館 (광무11년)
1901년	大同書市	金基鉉	中署 鐘路	
1901년	朱寅燮紙廬 在家下 冊肆		中署 洞口 能朝橋 越邊	주한영책사 인듯함
1901년	廣文社		中署 漢洞	
1905년	博文社		美洞 三十統四戶	
	耶蘇教書院	鄭益魯 金聖鐸	平讓 貫洞 上隅	
1906년	趙承 冊肆		會洞	



1906년	大同書館		平讓 鐘路 法橋	
1906년	盛文堂		大韓門前 (電話 四二六番)	(지도,잡지 지필묵등)
1906년	普文館		南署 會洞	인쇄업
1907년	東華書館	金興淵	北署 安國坊 大安洞	
1907년	金琪鴻書舖	김기홍	大邱 刷還洞	
1907년	崔昌漢書舖	崔昌漢	中署 松橋	후에 廣華書館
1907년	新民書會		平北 宣川邑 川邊	
1907년	李興均	李興均	南署 履洞	문방구류
	文房具書店			
1907년	漢陽書館	李種萬	東部 大寺洞 三十統二戶	
1907년	開新冊肆		仁川港 柵峴	
1907년	廣華書館	崔昌漢	中署 松橋	이전에 최창한서포
1907년	韓西書院	張有寬	義州 南門外	
1907년	啓新書店	洪種權	三和港 碑石洞 大橋	1906년 6월 11일 개업광고
1907년	啓明書館		平讓	
1907년	古今書海館	金寅珪	銅峴下	
1907년	敎育書畫館		平讓 烈女洞 (大同館 前)	
1907년	博文書館	盧益亨	南門內 尙洞 (척파는 집)	1907년개업
1907년	妄助 冊肆		開城	
1907년	東華福音書館	趙于석	平讓 西門內	
1907년	興學書舖		開城 南門內	
1907년		冊肆	安州 義井洞	
1907년	書舖		海州 南門內	
1907년	耶蘇敎書舖		寧邊	
1907년	勉學書會		安岳邑	勉學會에서 운영
1907년	協成書館	平讓	大同門前	敎育書畫館이 확장 出資 朴鳳輔 黃大永 張壽喆 金有鏗
1907년	安峴書館	河益泓	安洞	

1907년	博學書館		鄭承模,玄楹 南部 銅峴 (구리2)	
1907년	춘성서관			
1907년	廣學書館		義州 南門外	
1907년	玄公兼家	玄公兼	桂洞 蕘谷 第十三統二戶	
1907년	博聞書館		銅峴	
1907년	新古書林			
1907년	明新書市	朴禎錫	開城 鉢谷	
1907년	書舖	禹時和	咸南 端川邑 龍般里	
1908년	新舊書林	池松旭	南門外 紫岩 四十二統十戶	池松旭書舖
1908년	大韓書林	鄭雲復	北部 小安洞 拾六統 八戶	1908년 5월 1일 개업
1908년	石室書館		大邱	
1908년	耶蘇敎書會	元世性 李敎憲	漢城 鐘路 電氣會社越邊	
1908년	海東書館	金基津,李鎰	北靑	
1908년	獎文社書館		北部 小安洞 安峴 第十一統四戶	獎文社 부설 1908년 5월 개업
1908년	知新書館	金滢植	安州城內 大街	
1908년	海星書會		南部 明禮坊 大龍洞 新作路 第十四統二戶	
1908년	光東書館	安允在 孫并權	黃海道 松禾郡 木橋	
1908년	弘文館		南部 半井洞 十統十戶	
1908년	韓興書館	金汝重 權種律	釜港 東闕	
1908년	英林書館		大寺洞 二統七戶	
1908년	廣東書局	李鐘楨	中部 典洞	
1908년	海星書局		南部 龍洞	
1908년	日韓書房		泥峴 二町目 四十番 (電話 百四十五番)	
1908년	太極書館	館主 李昇燾 平讓 鐘路		

		主任 安泰國		
		專務 李德煥		
1908년	廣智書舖	玄桓	大廣橋 西邊	
1908년	義進社		南部 上茶洞 八統一戶	
1908년	光明書館		平讓 鐘路 (大同館 上隅 二層屋)	
1908년	唯一書館	南宮濬 南宮楹	大寺洞 三十八統一戶	
1908년	進明書館		大廣橋	
1908년	文明書館	玄楹	南部 東峴 四巨里 (二層屋)	博學書館과 동업 하다가 10월 23일 개업광고
1908년	漢城書畫館			
1908년	東一書館		鐘路	
1908년	新文館	崔南善	南部 絲井洞 五十九統五戶	
1908년	廣德書館	安泰瑩	中部 能朝橋 下隅 十七統加一戶	
1908년	西山書局		全州	
1908년	安陵書館	金翼河	安州 義井洞	
1908년	七書房	張在彥 <sup>40)</sup>	全州 南溪	
1908년	明東書林	崔公麟	平安北道 朔州郡 中南面館市	
1908년	興文社		鐘路 里門上隅 十二統三戶	
1908년	興學書館		開城 鐘路	
1908년	韓昌書館	李承駿 朴昌鎭	海州 南門外 四街	1908년 7월 23일 개업광고
1908년	徹心書館		寺洞	
1909년	第一義進書館		京城 中部 寺洞	
	第二義進書館		京城 南門 七間內	

40) 柳鐸 -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89, p.233)에서 1916년 七書房의 경영주는 張煥舜으로 그의 신분이나 가계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고 하였는데 1908년 경영주인 張在彥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거나 같은 家系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1909년	廣東書館	任學辛	寺洞	
1909년	傷洞西書市	林景柱	安岳邑	
1909년	天道教冊肆		典洞	
1909년	隆文堂		安峴	
1909년	普成館		磚洞	
1909년	普救書館		東部 梨峴	
1909년	廣韓書林	俞鎮泰	大寺洞 二統五戶	융희3년 3월 개업
1909년	仁愛堂書店	洪仁均	開城 南門外	
1909년	同文館		南部 上梨洞 十九統九戶	
1909년	玉虎書林		南部 銅峴 六四街里 三十五統五戶	
1909년	朝陽書館	黃海道	鳳山郡 沙里院	
1909년	영신서관	김봉주	寧邊	
1909년	廣明書舖	白일成	金海郡	
1910년	廣文堂書舖	南鴻祐	南部 苧洞 十七統十戶	
1910년	海東書林		漢城 鐘路	
1910년	東文書林	金雨均	南部 銅峴 南大門統	
1910년	東洋書院		中部 勝洞禮拜堂前	
1910년	修文書館	朴熙寬	北部 章多 義宮 西門後 四統十五戶	
1910년	文華堂		中部 典洞	
1910년	日新書館	金致億	寧邊城內	
1910년	新舊冊店	崔昌烈	平北 雲山郡 北市上街	1910년 3월 11일 개업광고
1910년	普及書館	金容俊	北部 小安洞 十六統八戶	명치43년 8월 30일 개업광고
	普明書館	館主 宋在東 全北 泰仁郡內 七里五統一戶 主任 宋在敬		개업광고
	芸香舖	金舜命	元·上里 二洞	

서포의 분포는 이상에서처럼 서울이 중심이 되었지만 기타 지방에서 서포의 지역적 인 분포를 살펴보면 평양 (8개소), 개성 (5개소), 안주 (3개소), 영변 (3개소), 전주 (2

개소), 의주 (2개소), 해주 (2개소), 안악읍 (2개소), 대구 (2개소), 인천 (1개소), 북청 (1개소), 삼화항 (1개소), 전북태인 (1개소), 부산 (1개소), 평안북도 (3개소), 황해도 (2개소), 함경도 (1개소), 경기도 (1개소) 등이다. 이것은 신문의 서적광고와 서포광고를 정리해 추출한 것이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서포가 존재했을 것이고 지방의 서포들 역시 그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 또 설립추정시기 역시 최초의 광고기재년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실제 설립년은 이보다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만 본다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전북에서 서포의 출현과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와 태인 지방에서 서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은 일찍부터 방각본이 출현한 곳으로 서울, 달성(대구)과 함께 전통적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서포발생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실제 개화기 당시 간행된 방각본의 상당수가 이곳 서포들에서 발행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서포가 있었던 평양 역시 서울 다음의 중심지였던 까닭에 당시 많은 개화문물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평북에 소개했던 서포들이 의주, 삭주, 영변, 운산, 선천, 안주 등으로 국경과 평양을 잇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와 개화문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먼저 이곳에 전해져 서포의 출현과 정착이 그만큼 빨랐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역 역시 비교적 많은 서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평양과 서울을 잇는 교량지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하는 특히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회당이 설립된 곳으로 그 어느 지역에 비해 개화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과 평양을 잇는 길목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개화문물을 수용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들의 전통적인 商利精神이 작용하면서 많은 서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개화기 서포는 크게 傳統的인 出版文化中心地 — 서울, 대구, 전북지역 — 와 開化文物의 전파가 빨랐던 지역 —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북지역, 인천, 부산 — 그리고 商業이 發達했던 곳 — 개성을 비롯한 황해도 지역, 북청 등 — 을 중심으로 설립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이남보다는 이북지역에서 많은 서포가 분포되어 있었던 것도 특징적이다.

#### 4. 結 言

이상에서 개화기 서포의 설립, 역할과 현황,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초의 서포는 1880년대 말 대광고에 설립되었던 고제홍서포로 알려졌으나 초기에는 책거간, 신문사, 각급 학교 등에서 서적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05년을 전후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주한영책사, 김상만책사, 야소교서회, 대동서시, 개명서관, 동화서관 등이 설립되면서 서적의 전문유통체계가 마련된 듯하다.

서포주들은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고 각기 신분도 달랐으나 당시로서는 민족의식을 지닌 개화문물의 선구자들이었다. 국가의 부강과 국민의 개명을 위해 서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이들은 외국과의 서적교역을 통해 서적구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한편 도서출판의 장려와 발매방법의 규정 등을 구상하기 위해 서적업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고 도서관, 종람소 등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또 국채보상운동시 수전소의 역할도 하여 민족적 애국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서포의 주된 역할은 각종 서적의 판매였다. 그 중 교과서류와 신규실용서적들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서포들이 판매하던 서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것들이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학교 사용 교과서에 대해 많은 제제가 가해지고 1909년 교과서 검정규정이 발표되면서 도서출판계는 크게 위축되었다. 또 학부편찬교과서에 대해 발매권을 제한함으로써 서포들 역시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1909년 새로운 출판법의 적용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와 서포들을 침체국면으로 이끌었다.

서적의 판매 외에도 서포들은 서적의 간행과 인쇄를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간행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08년 경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서울이 발매원이 되었으나 지방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지방에서도 발매권을 갖게 되었다. 발매소는 경향의 각 서포들이 맡아 보았고 규모가 큰 몇몇 서포들은 지점을 두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서포들은 경제적으로 서적구입이 어려울 경우 일정 임차료를 받고 서적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양의 야소교서회는 본회 건물에 도서실을 마련하여 많은 서적을 갖추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하였다.

이들 서포는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전통적인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 일찍부터 외국문물의 유입이 많았던 곳으로 상업이 발달해 서포의 설립이 빨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외 지방에서 서적판매를 전담하던 서

포가 출현한 것은 광무 10(1906)년경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서포광고와 서적광고에서 추출한 104개 서포의 지역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서울, 대구, 전주와 같은 곳으로 일찍부터 방각본이 출현하였던 전통적인 출판 문화 중심지이다.

둘째, 개화문물의 전파가 빨랐던 지역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북지역, 인천, 부산 등의 항구지역이다.

셋째,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역인데 이곳은 평양과 서울을 잇는 교량지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며, 개화문물이 수용되면서부터 전통적인 상리정신이 발휘되어 서포의 설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康允浩(1975). 開化期の 教科用 圖書. 교육출판사.

金根洙(1980). 韓國雜誌史. 서울: 청록출판사.

金鳳熙(1987).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 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_\_\_\_\_ (1993). 韓國 開化期 基督敎學校 教科書의 書誌學的 研究. 「圖書館學」第23輯.

\_\_\_\_\_ (1993). 韓國 開化期 日間紙에 나타난 圖書館 認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논총 인문과학논집」 63집.

金侖壽(1990).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書誌學研究」 第5, 6合輯

모리스 쿠랑, 박상규 역(1974). 韓國의 書誌와 文化. 서울: 신구문화사.

柳鐸一(1988). 大邱地方刊行達板坊刻本에 對하여. 「書誌學研究」 第 3輯.

李章植(1984). 大韓基督教書會 百年史.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全泳杓(1981). 韓國出版의 史的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新聞學科 碩士學位論文.

趙璣濬(1970). 開化期の 書籍商들. 「中央」 30.

최 준(1964). 韓國의 出版研究. 「신문연구학보」 1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_\_\_\_\_ (1970). 韓帝國時代의 出版研究. 「신문연구학보」 1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_\_\_\_\_ (1970). 韓國新聞史. 서울: 一潮閣.

河東鎬(1981). 韓國近代文化和 書誌研究. 서울: 깊은샘.



---

ABSTRACT

## A Study of Seo-po in the opening Period of Korea

Bong-Hee Kim\*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Seo-po (書舖) in the opening period of Kore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role they played, the particular situations and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researched.

The earliest seo-po was Koh-je-hong seo-po, which was established in Tae-kwang-kyo at the end of 1880s. Around 1905, a specialised book distribution system was set up with establishment of Chu-han-yung book store, Kim-sang-man book store, Jesuit book store, Tae-dong su-si, Kae-myung seo-kwan, Tong-wha seo-kwan. The owners of the seo-pos were pioneers in introducing modern culture with nationalistic consciousness, although they were primarily businessmen and their social origins varied.

The primary role of seo-pos was selling a variety of books but some combined printing and publication of books as well. It seems that publication business took roots around 1908, though it is difficult to know the accurate dates of first attempts.

Some seo-pos offered book rental services for poor people who could not easily afford to purchase books. A certain amount of deposit had to be paid to benefit from the services. Jesuit Bookstore in Pyungyang had a library facility with a large stock of books in the same building open to public for free.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wha Women's University.

These seo-pos started mainly in Seoul and Pyungyang, which were traditional centers for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Early introduction of foreign cultures and commercial developments in these are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seo-pos. The seo-po which took charge of book distribution in the provinces was set up around 1906.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seo-po show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is that the area such as Seoul, Taegu and Chunju were the traditional centers of publishing culture from which Pang-gak-bon(坊刻本) emerged.

Second characteristic is Pyungyang and the surrounding Pyungbuk province, and harbors like Incheon and Pusan, which had the benefits of early spread of modern cultures.

Third characteristic is Kaesung and the surrounding Hwanghae province which bridged Pyungyang and Seoul. The reception of foreign cultures stimulated the commercial spirits traditionally attributed to Kaesung to establish seo-pos most actively.